

신행수첩

이름만 업장셋는 기도 보리암·실상사등서

쌀쌀해지는 날씨속에서도 신심을 높이기 위한 신행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회장 홍성광영)는 18일, 19일 양일간 방생 기도 및 성지순례를 떠난다.

신도회는 18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를 출발, 실상사와 천문사를 둘러보고, 남해 보리암에 도착 할아기도를 갖고 불법심사에 들어간다.

다음날은 선운사 참배와 도솔암에서의 기도도 불심을 한껏 드높일 예정이다. 뜻있는 불자들은 한번쯤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02-739-1951)

천년고찰 은해사 17일 명부전 낙성

불교성지 팔공산 남쪽줄기에 자리한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혜암)가 17일 오전 10시 명부전 낙성과 대웅전 좌우보살 점안식을 병행한다. 수행납자들의 동안거 결재와 때를 맞추어 병행되는 이번 불사이행은 곧바로 백일기도로 이어진다.

은해사는 신라 현덕왕 원년(809년) 혜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거대한 화제로 문화재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산내에 운부, 거조, 기, 백출암 등 문화재가 많고 있어 역사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 여름 을사 일타스님이 주지로 부임, 계율도량으로서 새롭게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0563-35-3318)

포교의 활성화 논의 조계종 전국 5개지역

포교는 낯선 이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 포교하는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지홍)는 11월 20일 부터 12월 11일까지 94년도 3회 포교사 재교육을 개최한다.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 등 5개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될 이번 포교사 재교육은 포교활동의 활성화방안과 그에 따른 전망이 보론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도 건설에 앞장설 많은 포교사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02-737-9681)

동심의 세계로 가자 혜명보육원 방문

바른 대학생활속에서도 불법을 전함은 물론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인 신세대들이 늘고 있다.



고창 선운사 대웅전 앞에 있는 6층 석탑

조계사 대학사회(회장 김정균)는 19일 오후 1시 구로구 소재 혜명보육원을 방문, 아이들과 함께 법회를 갖고 아이들의 놀이친구가 되어준다.

대학사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육원 자원봉사활동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참여를 권해본다. (02-720-5334)

어린이는 내일의 꿈 지도교사 거듭나기

불교의 미래를 이어 나갈 어

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조계종 한마음선원 어린이지도교사회는 11월 26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충북 음성군 한마음선원 금강지원에서 제 2차 전국어린이 불교학교 지도자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연수교육은 지도교사 실천현장처럼 성공사례 발표와 화엄 놀이 등이 참가자들의 열기를 높여 줄 것이며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진솔한 지도자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법회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소임을 보는 스님, 법사, 반지도교사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번 연수교육에 어린이를 아끼고 불교를 사랑하는 신

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신청마감 11월 24일 (0446-877-0462, 0343-72-3100)

낙태참회·수자영가 천도 17일 보성 대원사

종교계의 경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태가 날로 늘고있다. 낙태는 곧 살생이며 어린 영가의 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영혼들을 위해 수자영가라 한다.

전남 보성군에 소재한 대원사(주지 현장)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자자정보살을 봉안하고 수자영가의 천도를 기원해 주고있다. 오는 17일에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만일미타기도를 발원하고 1백일 미타기도를 입재한다.

기도의 회향은 95년 2월 24일 이다. (0694-52-1755)

불비니 합창단 음성공양 16일 도신스님도 출연

부처님을 예경하는 공양물 가운데 향, 차, 꽃, 쌀, 과일을 일러 오공양이라 한다. 국화향기 그윽한 가을날, 부처님전에 올릴 공양물은 무엇이 좋을까. 어쩌면 오공양물보다도 부처님을 노래로 찬탄하는 음성공양이 더욱 황희를 높일것이다.

서산시·군사면연합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 서산 문화회관에서 음성공양을 올린다. 박명신씨가 지휘하는 불비니합창단 정기연주회다. 이번 연주회는 가톨릭,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서공 유치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 가 찬조출연, 장내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어 노래하는 도신스님이 음성공양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0455-666-1510)

부처님 앞에서 백년가와 봉은사에서 무료결혼식

세상의 눈은 두 남녀의 사랑만을 지켜보아 주지 않았다. 세상은 통과례를 존재시키고 가끔은 이런 사랑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결혼은 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이런 아픔을 씻어주고자 불교가 나섰다.



봉은사 무료결혼식

봉은사(주지 무상)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봉은사내 전통혼례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무료결혼식을 거행한다.

불교 전통혼례로 치뤄질 무료결혼식은 청아한 사찰 주변 풍경과 목어소리가 참가 부부들의 설움을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다짐을 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의 밤, 결연의 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부부들은 26일까지 봉은사로 연락하면 된다. (02-517-1331)

부산에서 자선음악회 맑고 향기롭게 살기

지존과, 은보현사건에 이어 성수대교가 무너지니를 유난히 사회가 혼란스럽다. 사바세계도 맑고 향기로운 세상이 될 수 없을까. 1년전 법정스님은 우리를 마음마디에 청정한 연꽃을 활짝 피워내고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안했다. 청주, 춘천에 이어 부산에도 뜻을 같이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부산·경남본부(본부장 박수관)가 28일 오후 3시 부산시 민회관 대강당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이르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는 법정스님이 '나눔의 기쁨'에 대한 법을 설한다.

이어 노영심 김광석 김영동 김아람 등 대중의 인기를 모으는 가수가 출연해 공연을 한다.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의 찬불가도 올릴것이다.

행사장에는 부산시가 추천한 소년소녀가장 25명이 특별참석한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이를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051-867-8606)



한석훈

<변호사>

부처님의 출가는 생노병사의 인생무상을 느끼는데서 비롯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중요하고 기쁨속에 있을 때보다는 인생의 가난과 좌절과 마음의 공허함에 마주 했을때 새삼 종교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처음으로 나혼자 조용한 산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때도 마치 전쟁하듯 사무고사준비에 몰두할 때였다.

이때에는 내가 꼭 이래야만 되나 하는 회의도 많았으나 불연듯 홀출듯 나혼자 서울근교에 있는 화계사나 삼성사를 찾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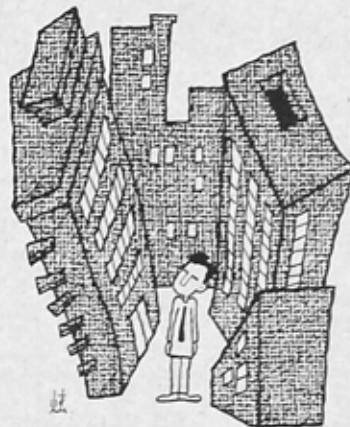
화계사의 불교 청년회가 마련하는 법회에서 육조 해능선사의 육조단전에 관한 법문을 들으며 호수처럼 맑고 깨끗해 지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였고, 삼성사 노스님의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

민일지라도 나무이타를만 얹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시대 그 상황에 서는 백성들이 열뿐만 하면서도 불심을 가질 수 있었고 차츰 종교의 심오한 정신세계에 친숙해지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곤 하였을 것이다. 참으로 큰 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다르다. 오늘날과 같이 생활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국제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는, 단순한 열뿐만으로는 아무런 노력없이 행복이 열거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에 빠지기 쉬울 뿐이다.

내가 변호사로서 가장 법정에서 소년호를 맡게 되는 경우, 그 소년들의 대부분 공판된 결손가정에서 아무런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도 없이 자랐고 살고 있다는 점이

다. 일없이 살면서 본드를 흠입하고



화계사 큰나무 아래서 행로 결정

안과 용기를 얻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화계사 넓은 경내의 큰나무아래에 앉거나 드넓은 숲속에서 서서 나혼자 상념에 잠겨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하나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의 정당성을 정리하며 나 자신의 자아를 들여다 보는 것을 더 즐겼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산사를 내려오는 나의 발걸음은 울라갈 때와는 달리 한층 가벼웠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곤 하였다.

그러나 불완전한 것이 인간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마음이 산란해지곤 하였고, 그때마다 산사를 찾으며 전처럼 힘과 용기를 얻곤 하였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삶이 두려워 종교를 생각하는 것이고, 종교는 삶의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신라시대의 귀족불교를 민중불교로 끌어 내린 원효대사는 경문을 읽지도 못하는 보

여지친구와 혼숙하고 동료들과 함께 정자오 탁살에 가거나 술마시며 노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들을 보면서, 가슴아플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제시해 줄 일고 신선한 정신세계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곤 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우리 사회는 악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앞서는 사회지, 참된 종교 정신이 앞서는 사회는 아님을 느낀다.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력된 마음을 부추기기도 한다.

우리가 찾는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은 결코 새로운 것일 수 없다. 그저 낡은 진리에 새 빛을 비추며 행동으로 생생하게 비추는 것일 뿐이다.

나는 깊은 산중에 세워진 고찰을 보면서, 맹수가 활짝핀 그 시절 용감하게 산간오지에 도랑을 세워 지나가는 길손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새소리,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정적속에서 인간구원을 위해 용맹정진하던 고승들의 또렷한 눈빛들을 생각한다.

생활 속의 불교 ④

“아무리 넓다 해도 우주는 동네집”

마음엔 모양도 없고 색채도 없고 몸뚱이도 없어서 마음으로 못 미치는 곳이 없고 못 가는 데가 없다. 아무리 깊은 곳, 높은 곳, 먼 곳이라도 가지 못할 곳이 없다. 마음에는 지붕도, 벽도 없다. 고로 천지를 드러내어도 걸리는 데라고는 없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도, 또 지상이든 우주든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눈 깜짝할 새에 혹성들을 징검다리처럼 디디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음이 그토록 자유자재한 줄도 모르고 항상 좁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스스로 제 마음의 무한 능력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기심, 질투심, 자존심 따위의 좁디좁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라도 닦칠 양이면 '어떻게 하나' 전전공공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우주 전체가 마음에 의해 이뤄졌고 마음의 근본자리에 통하면 삼천대천세계가 이

웃 동네집이나 같다고 가르치셨다.

천국과 지옥도 마음 먹기 달랐다. 고통과 기쁨도 마음 먹기 나름이다. 행복이란 잘나고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잘났다 못났다는 생각에서 마음에 울화가 치밀면 그대로 화탕지옥이 되고 평화가 깃들면 그 순간 천국에 있는 게 된다.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마음이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일처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PP, PE백프렌, PE발포 전문 업체
· 각종 규격의 원지 생산 및 재단
- 나무, 합판 및 종이 보드 대체용 -

부산시 북구 학장동 289-3
전화: (051)313-2859, 315-2859
팩스: (051)313-2859